

야고보가 마신 잔

The Cup James Drank

마가복음 10:35-4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3월 3일 설교

³⁵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³⁶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³⁷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³⁸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³⁹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⁴⁰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⁴¹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⁴²예수께서 불려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⁴³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⁴⁴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⁴⁵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 제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 지내며 함께 일했던 사람이 열두 사도입니다. 이름 한 번 외어 볼까요? 시작은 베드로, 그 다음은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입니다. 이런 게 기초인데 요즘은 관심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열두 가운데서도 특히 세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지요? 수제자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가장 먼저 부름 받은 제자들입니다. 동업자 어부로 함께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부르시자마자 배도 그물도 심지어 같이 고기를 잡던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눅 5:11; 막 1:18, 20; 마 4:20, 22). 계기가 뭐였습니까? 밤새 허탕을 친 다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기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줄 알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누가 감히 싫다 하겠습니까?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안드레는 왜 빠졌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셋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 5:37; 눅 8:51).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가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 17:1; 막 9:2; 눅 9:28).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 예수의 모습을 이 세 사람만 보았습니다 (벰후 1:16-18).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두고 이 세 제자에게만 깨어 같이 기도하자 부탁하셨습니다 (마 26:37; 막 14:33). 가려 뽑은 열두 가운데서도 더욱 특별했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한 자리 욕심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되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늘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고 그러면 열두 사도는 열두 대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눅 9:46; 22:24) 다 큰 사람들이 유치원 아이들 같은 그런 싸움을 벌인 이유가 다 그런 영똥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싸움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다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 둘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 자리에 앉으시면 열두 사도가 곁에 줄줄이 앉을 건데 예수님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두 개를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두 사도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삼인방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한 그런 왕이 되신다면 따로 부탁을 안 드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찾아와 부탁을 드렸을까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오른쪽을 차지하면 왼쪽 자리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야고보나 요한 둘 가운데 하나는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밀어내고 둘이 아예 좌 야고보, 우 요한을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잔과 세례

예수께서 세 문장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철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꾸중하시는 그 말씀 속에 천국의 원리도 함께 담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사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 19:28). 하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도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세력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입니다. 일등과 꼴찌가 뒤바뀌는 나라, 남보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남보다 높아지겠다는 거냐? 너희 둘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구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말씀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 곁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나도 받아야 됩니다. 잔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도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눅 12:50).

그런데 두 제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 같지요? 담대한 고백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뜻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인데도 이들은 십자가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겁이 나서 그게 뭔지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막 9:32).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한 자리 할 욕심이 팍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시실 잔을 마시고 받으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시니까 일단 할 수 있다 한 겁니다. 한 자리 주신다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 일 하나님의 일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뜻밖에 “그래, 그래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도 받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주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갈 것이고 그런 다음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사실 두 사람뿐 아니라 주 예수를 따르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만 내 일이고 그 다음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천국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를 따라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셨지만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나한테 청탁을 하러 왔는데 내 곁에 앉는 영광은 누가 청탁을 한다고 해서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선택이지만 만약 지금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엉뚱한 욕심을 품고 주님을 따른다면, 다시 말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더 누리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내 탐욕을 위해 이용해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입니다. 누가 더 착한가 보고 착한 순서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도 은혜입니다. 누가 많이 낮추는가 보고 거기 맞추어 높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는 그

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일 따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여러 사람이 따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들어 있습니다 (요 21:1-25).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도 맡은 역할이 있고 요한도 한 마디 하는데 야고보는 안 나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함께 한 다음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베드로하고만 나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합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실 요랑이면 야고보, 요한도 불러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한테만 세 번을 거꾸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부탁도 베드로에게만 하십니다.

요한도 뒤늦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더니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싱거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한은 주님 재림 때까지 안 죽는다 하신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뜻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요한이 주님 잔을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를 쳤는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 날 갈릴리 바닷가에는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야고보는 큰소리친 그대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요한은 오랜 세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이 많아 죽을 것이고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안 당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백스무 명쯤 모였는데 이름을 보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여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데 보니 베드로가 모임을 인도합니다. 대표지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도 베드로가 열두 사도의 대표 자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곁에 요한 하나만 있고 야고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전에 베드로를 밀어내고 오른 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 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지도자가 되고 그 곁에 요한이 섰으니 야고보가 밀려난 형국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쳐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있던 복음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지역에 퍼져 나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둘을 파송했는데 그 두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행 8:14).

베드로는 대표니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요한이 간 건 사실 뜻이 좀 있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셨다가 사람들이 거부해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분개해서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몰살시켜 버립시다” 했습니다 (눅 9:54). 복음을 거부했으니 옛날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시켜 버리자는 말입니다. 성격 대단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전에 이 둘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막 3:17). 어쨌든 예수께서는 두 사람을 꾸중하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 감정을 가졌던 마을에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 곳이라면 야고보도 같이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 하나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는 그렇게 이름도 안 나오고 조용히 사라지는가 싶더니 사도행전 중간쯤 갑자기 이름이 꼭 한 번 나옵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행 12:1-2). 헤롯의 칼에 죽었다, 이게 답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일세로 헤롯대왕의 손자입니다. 지

난 주 살렸던 악한 여인 헤로디아의 친오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십 년이 지난 다음 꼭 한 번 나오는데 헤롯의 칼에 죽었다, 그러고는 영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잡혀 죽은 뒤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온 교회가 모여 살려 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칼에 죽고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청탁 한 번을 잘못 했기로서니 이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접이 다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의 칼에 죽었으니 순교입니다. 그런데 순교도 스테반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못사람 앞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장렬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야기는 글로 써도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고보 자신이 그렇게 앞장을 서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저를 일등으로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야고보가 밀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야고보는 제가 뜻도 모르고 한 그 말대로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뜻도 모르고 했지만 그 말 속에 야고보의 믿음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그래 맞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스테반의 순교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박진감 넘치게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떠냐, 너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세상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자리를 탐하더니 요한은 성공했는데 야고보는 실패했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처음 선교를 이끌다가 얼마 뒤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주역 되는 게 예수님 오른쪽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가운데 일등으로 순교하는 게 왼쪽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이든 내 눈에 높아 보이면 그건 이미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허무한 죽음입니다. 멋도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름도 안 나오고, 사마리아 전도 같은 뜻 깊은 일에는 끼워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 한 번도 못 하다가 그냥 붙잡혀 칼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주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갔습니다.

세상은 완결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미완성도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다음 점점 깊어지다가 위기를 맞이해 갈등을 겪다가 그 위기를 해결하면서 아름답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셉이 인기가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고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시작과 결말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야고보처럼 살다갑니다. 욕심을 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은 전혀 못 받고, 이름이 반짝하는 순간 죽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잊힙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지막 영광

뜻을 찾기 어려운 우리 인생입니다. 교통사고가 나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오랜 세월을 천장만 바라보며 멍하니 지내다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색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소설에 나오는 멋진 인생에 비하면 참 피조죄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도 모를 우리 인생, 그런 인생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야고보는 뜻을 찾기 어려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밧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가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막바지에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에 기초석이 열두 개가 있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 21:14). 형 야고보의 이름도 그 가운데 하나에 적혀 있었겠지요.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 야고보의 이름 석 자는 오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러면서도 참 앞뒤 맞추기 어려운 복잡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갈 바를 모를 때, 나는 남들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싶을 그 때,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든 저 사람이 저렇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 뜻을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만 따르면 된다 하십니다. 그 영광을 믿고, 영광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늘도 쉽지 않은 이 삶,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권수경 목사)